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활동공간 이용행동 및 점유행태*

이 민 아(군산대학교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활동공간의 이용행동과 점유행태를 조사하여 시설 거주노인의 공간 이용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물리적 요인을 분석하여 적합한 활동공간 계획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용행동의 조사를 위해 2008년 1월 기준 층당 활동공간이 2개 이상의 영역으로 구분된 5개 시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저녁식사 직전인 오후 4시까지 종일관찰을 실시하였다. 4명의 연구원이 각 시설의 기준 층에 위치한 대표활동공간과 부수활동공간에 자리를 잡고 거주노인의 이용행동을 관찰 기록하였고 그 점유행태를 도면에 표시하였다. 이용행동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크게 식사/간식, 프로그램, 대화, 협동작업, 싸움, 진료/케어, 구경/관찰, 개인 활동, TV/휴식, 운동, 배회, 무위/수면, 이동의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이 중 식사/간식과 프로그램은 공식 활동, 대화, 협동작업, 싸움, 진료/케어는 상호작용,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행동의 상호작용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점유행태는 식사와 프로그램시간, 그리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활동공간에 대한 거주자 이용행동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넓은 복도형, 혹은 넓은 활동공간 면적을 가진 시설에서 대표활동공간의 이용이 많은 반면, 부수활동공간은 거실형 활동공간에서 이용건수가 많았다. 이용행동의 대부분은 공식 활동과 비상호작용 행동이었는데, 특히 홀 형태의 넓은 대표활동공간과 독립형의 부수활동공간에서 상호작용 행동이 드물게 나타났다. 공적영역의 성격을 띠는 대표활동공간은 개방성과 접근성이 이용건수에 영향을 미치며, 면적과 1인당 면적, 중심성과 다양한 공간구성은 거주노인의 상호작용 비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부수활동공간의 이용은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 비율은 상호작용에 좋은 ㄱ자, 혹은 ㄷ자 가구배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활동공간의 점유행태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시설에서 프로그램과 같은 공식 활동을 진행하는 중 다른 종류의 행동, 즉, 구경이나 관찰, 개인 활동, 혹은 다른 활동공간의 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사 대기실 주변과 같은 의도되지 않은 활동공간에서 대화 등의 상호작용과 구경/관찰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직원공간과 활동공간 간의 시각적 연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표활동공간 내 통과동선이 생기거나 연계성이 없는 가구구획, 영역별 경계의 불분명함, 단조로운 구조와 프라이버시의 비 확보는 노인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경향이며, 반대로 다양한 활동을 위한 소규모 공간구획과 상호작용에 유리한 가구배치, 그리고 활동공간으로의 뛰어난 접근성은 거주노인의 대화와 개인 활동의 빈도를 높였다. 연계형 활동공간의 경우 장소성과 영역성 부여를 위해 선반 등의 가구배치에 유의하고, 활동공간에 대한 구경/관찰 장소의 마련뿐 아니라 활동공간 내에 점유한 노인들도 복도 쪽으로의 시선개방과 공간구획 및 가구배치를 위한 부수활동공간의 여유 있는 바닥 면적이 무위/수면 등의 비상호작용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31-C00300).